

# 이번주 장관 후보 청문회... 여야 대격돌 예고

### 내일 행안 전해철·23일 국토 변창흠·24일 여가부 정영애 국민의힘, 과거 발언·부동산 구입 과정 등 현미경 검증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운동권 출신의 하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장을 도왔다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 등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변 후보자에 대해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며 '무자격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원 불패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

라며 철저한 검증을 베풀고 있다. 전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여권 실세' 정치인을 기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박원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최측근을 선거 주무 장관에 보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유연성을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정말 엄격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을 관할하는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신 확보와 관련한 송곳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지·아파트를 수차례 사고팔며 1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다. 정영애 후보자에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생각과 피해자 보호책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떠나며 지지자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시장 세번째 도전

### 내년 4월 재보선...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 단일화 나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해 국민의힘과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야권연대 방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유불리 따지

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불출마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2022년 대선 출마 의지를 접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안 대표로서는 이번 출마가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다.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7년 만에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박원순·김문수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박영선·추미애 행보 관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중추선거본부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도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그간 출마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출마란 세 변수가 나오면서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 주자로 유력한 잠룡이 나온 만큼, 민주당으로서 적어도 박 장관 같은 대중성을 갖춘 중랑급 인물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에서다. 박 장관은 각종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추 장관의 경우 무엇보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론의 필수 강령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추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본인은 아직 보궐선거에 대한 뜻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공수처장 후보 새 인물 나오나

### 23일까지 추가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기존 후보 외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20일 제기되고 있다. 결정이 미뤄진 표면적 이유는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이 사퇴한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야당이 지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출마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추천위원 7명을 재위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추천위는 기존 후보군 10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가 사퇴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예비후보를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추천받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 추천에 조심스러워하면서 새로운 후보의 부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조오섭·이용빈·김희재·서동용, 민주 '국감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병훈(동남읍)·조오섭(북강)·이용빈(광안)·김희재(여수)·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등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누빌의 설계도 완성률 목표 ▲정책의 깊이 있는 국정감사 ▲백제미소포환수 ▲제도적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 수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8권의 정책자료집과 오버투 어리직 부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정책성과로 남겼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은 공공주택의 입주·정주·관리 문제 등 주거복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등 주택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문제제기와 불공정의 공정화로 '이슈 제기 능력'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국가 R&D사업과 5G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했고 전국 도시지역과 달리, 5G 기지국 설치 현황에서 전남을 비롯해서 비스 차별을 받는 농어촌의 실태도 고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서민',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달업계 종사자와 고령 택시 운전사 등 사회적 각계각층의 민생을 대변하는 한편,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국립대법원 불법 의료인력(PA) 운영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심리불안 문제 ▲지역공공의료 위한 지방의대의 서울 편입 운영 문제 ▲국립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등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민식이법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랑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적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